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인가?

한국이슬람교 선교위원회 엮음



한국이슬람교
KOREA MUSLIM FEDERATION

이슬람 문고 시리즈㉔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인가?

Is Islam a Religion of Terrorism?



이슬람 문고 시리즈 ⑭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인가?

Is Islam a Religion of Terrorism?

초판 발행일 : 2019년 7월 9일

엮음 한국이슬람교 선교위원회

발행인 한국이슬람교 선교위원회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

전화 (02) 793-6908

팩스 (02) 798-9782

홈페이지 www.koreaislam.org

차례

들어가며	3
생명의 존엄성	5
테러에 대한 잘못된 인식	7
이슬람과 관용의 역사	9
이슬람의 전쟁윤리	12
지하드에 대한 오해들	13
이슬람의 보편성과 정의	17
이슬람의 자비와 평등	20
사도 무함마드	26
마치며	30

들어가며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이슬람의 기본적인 교리와 사상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테러와 관련하여 이슬람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이슬람의 모습에 관한 글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TV,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러한 정보가 과연 올바른 것이며 더 나아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항상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왜곡된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진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이 그분(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여 지혜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 (알안암 6:151)

이슬람은 모든 생명을 중요시여깁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특별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는 살아갈 권리입니다.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선량한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과도 같으니라.” (알마이다:32)

우리는 이슬람에서 개인의 삶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소중함을 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한 생명을 부당하게 죽이는 것을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꾸란에서는 명확히 살인을 금지합니다. 오직 사회의 질

서와 안전, 평화유지 그리고 정의구현을 위한 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심판한 후에야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나(하나님)는 아담의 자손들을 명예롭게 하였고 ….” (알이스라:70)

만약 삶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종교의 근본적 목적이라면, 인간의 도덕적 요소를 보존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목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성품은 명예와 건전한 영혼을 지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본성에 도덕의 근본을 심어주셨으며 인간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성이 비뚤어지거나 사회적 환경과 외부 영향에 의하여 이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사회는 안녕과 평화가 깨지고 악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어 도덕적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

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악을 배척하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언자와 그분의 추종자의 전기와 올바른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언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고 관대하게 이끌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차별함과 온순함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을 지혜와 훌륭한 말(설교)로써 주님의 길로 초대하라.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서 그들과 논하라...” (안나홀:125)

테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 중하는 부당한 폭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터지는 폭탄이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는 비행기 납치이

든 간에 우리는 무고한 희생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테러는 우리 사회와 평화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테러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테러라는 단어는 수십 년 전부터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테러의 행위자들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단어의 사용을 협의의 의미로만 한정되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테러에 대한 협의의 정의는 특정인이나 그가 소속된 집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묘하게 이러한 사실을 무슬림들과 연관 지어 결과적으로 무슬림들을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무슬림들의 잘못된 행동과 수많은 비무슬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선하고 올바른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그에 대한 비난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침략, 극단주의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파괴와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억이 넘는 신도와 미국에만 7백만 명이 넘는 신도 수를 가진 이슬람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종교라면 과연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름 자체가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뜻하는 이 종교가 신도들에게 죽음과 파괴를 위해 일하도록 부추기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랫동안 미디어와 할리우드 영화가 보여주는 일방적인 이미지에 의존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슬람의 근원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폭력을 옹호하는지를 알기 위해 이슬람의 역사와 본질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슬람과 관용의 역사

이슬람 관용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고도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메카에 살고 있던 꾸레이쉬 부족과 그 추종자들의 박해로 더

이상 그는 메카에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정점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자 사도 무함마드는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히즈라) 하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메디나에서 성공적으로 이슬람을 이끈 이슬람 공동체는 메카를 향해 진군하여 결국 메카의 꾸레이쉬 부족은 무함마드에게 항복하였고 마침내 무함마드는 8년 만에 메카에 재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메카 수복의 염원을 이룬 무함마드는 8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꾸레이쉬 부족과 그 추종자들을 모두 용서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승리하였다고 해서 전리품을 빼앗거나 살해하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무함마드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슬람의 본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대략 800년간 스페인을 지배하였습니다. 무슬림들이 스페인을 지배했던 시기와 그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는 비무슬림들과 무슬림들이 공

존하였으며 또한 함께 번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유대계 소수민족들은 수 세기 동안 중동의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에서 상당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무슬림과 공존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슬림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합니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으니 올바른이 그릇됨으로부터 구분 되었음이라. 그러니 실로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러짐이 없는 단단한 손잡이를 움켜쥐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 (알바카라:256)

이슬람의 전쟁윤리

“적이 평화 쪽으로 기운다면 그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실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알안팔:61)

“그대들과 싸우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에서 싸우되 그들의 경계를 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알바카라:190)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도 이슬람은 적을 구별하여 다룰 것을 명했습니다. 이슬람은 적국의 전투원들과 비전투원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었습니다. 여자, 어린이, 노인, 병자 등과 같은 비전투원에 대하여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인이나 아이들, 여성을 죽이지 말라.)

(수도원의 수도승들을 죽이지 말라.)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전쟁 중에 예언자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녀는

싸우고 있지 않았는데 그녀가 살해당한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묻고 비전투원은 그들의 국가가 이슬람 국가와 전쟁 중이라도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같이 이슬람은 전쟁 중에 죽은 자를 욱보이거나 죄수들을 고문하거나 포로를 해치거나 성직자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여성, 어린이, 노인, 아픈 사람들과 같이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등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나(하나님)는 아담의 자손들을 명예롭게 하였고 육지와 바다에서 그들을 실어 날랐으며 좋고 깨끗한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었으며 내가 창조한 대부분의 것들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노라.”

(알이스라:70)

지하드에 대한 오해들

이슬람이 서양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는 동안,

아마도 지하드만큼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지하드라는 용어는 오용되었고 사람들이 무슬림을 생각할 때 한 손에는 꾸란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폭력적이고 기괴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십자군 전쟁 기간, 그리고 그 후 수 세기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하드라는 단어는 ‘노력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자-하다’ 라는 아랍어 어근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드는 말 그대로 고군분투 ‘노력’ 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가장 위대한 지하드는 ‘끊임없는 사탄(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내면의 선한 자신과 악한 자신의 싸움이고 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여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드는 유혹으로부터 인내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미덕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내면의 투쟁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지하드는 불의에 저항하는 투쟁을 뜻함

니다. 다른 많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자기방어를 위한 무장과 폭정이나 착취, 억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허용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남녀의 약자와 어린이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은가. 그들은 ‘주여 이 어두운 압박의 마을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당신께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소서’ 라고 기원하더라.” (안니싸야:75)

그러므로 이슬람은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정화하며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명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나쁜 사람들의 증오스러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끔찍한 침묵 때문에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지하드로 칭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결코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하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압둘라 빈 오마르가 전하기를, 한 남자가 사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하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부모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는 (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먼저 그들을 위해 노력해라.)

부모님에 대한 지하드의 의미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 효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들(고아와 과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장 선호되는 지하드 중 하나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과부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위해 싸우는 전사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온종일 금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욕망에 저항하는 것 또한 지하드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것이 지하드이고, 영혼의 선함을 위해 노력하며 행동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는 지하드입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또한 지하드입니다.

이슬람의 보편성과 정의

이슬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종교로 이끌도록 명했으며 무슬림들에게 정의와 선행을 실천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선행과 경외심을 위해 협력하라, 그러나 죄악과 적의에는 협력하지 말라...” (알마이다:2)

그래서 정의는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이 함께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러한 기초하에 만들어진 정의와 연민 그리고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모든 인류에게 그가 지닌 권리를 증·감 없이 그대로 실현해 줌을 뜻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위대한 목표 중 하나이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을 보내셨으며 사람들을 현명하게 이끌게 하려고 그분의 경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믿고 그것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 중에는 진리로 백성을 인도
하고 그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이 있더라”**

(알아으라프:181)

이슬람에서 정의는 적과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슬람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균형자로 이슬람 공동체를 그 공정함에 의해 이끌도록 하였으며 어떤 조직이든 공정함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함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은 그자체가 강한 결속과 생명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율법은 그 근원이 신성한 계시와 예언자의 모범적인 삶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공정함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그대들 자신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불리할지라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탈선치 않도록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왜곡하거나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안니싸아:135)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공정함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구분되며 하나님의 법은 스스로 공정해야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하디스(예언자의 언행록)에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공정하게 대우해야함을 사도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입맞춤조차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한 무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대들이 공평을 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공평하라, 그것이 경외심에 더 가까운 것이라...” (알마이다:8)

그리고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파티마 빈트 무함마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잘랐을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자비와 평등

이슬람의 가르침은 포괄적인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자격이 있는 무슬림들의 마음에 자비의 정신을 심도록 노력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또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신을 인도할 성서와 균형을 함께 보내셨노라.

그리고 그분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무쇠를 보냈나니 이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선지자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도를 돕는 자를 시험코자 함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알하디드:25)

또한, 자비는 전시(전쟁 시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여성, 소년, 정신이상자, 노인, 만성질환자, 승려, 하인, 농부와 같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이슬람에서 자비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슬람에서 요구하고 예언자께서 행한 자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모든 피조물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하디스에 따르면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매우 목이 말라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물을 마신 후 우물 옆에서 갈증에 지쳐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개는 허덕이며 극심한 갈증으로 축축한 땅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개도 나처럼 매우 목이 마르구나.’ 그래서 그는 우물에 내려가서 가죽 신발에 물을 채우고 이것을 물고 올라와 개의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언자의 한 교우가 사도께 물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께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디스는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권장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모든 생명체와 연관되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명하셨으며 그분을 경배하게 하기위해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최고의 경배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슬람은 정의와 자비 그리고 평등의 종교입니다.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평등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어떠한 법도 이슬람에서 요구하는 평등의 원칙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1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부터 창조하였고 너희 서로가 서로를 알게하기 위하여 민족과 부족으로 두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대들 중 가장 명예로운 자는 가장 높은 경외심을 지닌 자라...”

(알후즈라트:13)

인류는 모두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후손인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마지막 연설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유일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의 선조도 한 분으로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흑인이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권리와 의무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종족과 부족을 둔 것과 서로 협력하게 한 것은 그들의 혈통을 서로 자랑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성별과 뿌리와 부족을 토대로 차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은 훌륭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실천된 선행과 경건한 신앙심 즉 경외심(따끄와)에 차이를 둘 뿐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인정하는 평등의 원칙이며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은 그 힘의 원천이며 이를 실천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의 평등의 근거는 이슬람법 샤리아와 그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합니다. 이슬람의 공정은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공정함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그대들 자신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불리할지라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나니 탈선치 않도록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왜곡하거나 치우친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안니싸야:135)

또한, 이슬람은 모든 권리에 있어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또는 무슬림들에 종속된 국가에 사는 비무슬림들에게는 무슬림들이 가진 권리와 무슬림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국가는 무슬림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도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책임과 처벌에 있어서 법 앞에 남녀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선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하리라.” (안나홀:97)

또한, 차별에 있어 서로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대합니다.

“물건을 훔친 남녀의 손을 자르라 이는 그 두 손이 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니 하나님께서도 전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마이다:38)

이슬람은 사람들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편애함 없이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하디스에서 언급 하길

(여러분 이전 선조들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층과 힘 있는 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약자나 없는 자가 훔치면 처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만일 나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가 남의 것을 훔쳤다면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잘랐을 것입니다.)

사도 무함마드

하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개혁하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선을 받들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률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선한 개개인 이 이를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근본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사실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기에 이로운 것이 다른 시기에 이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민족의 본성에 맞는 것이 다른 민족들의 본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기와 지역과 민족의 본성에 맞게 수많은 사도를 보

내셨습니다.

사도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며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인종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무함마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했으며 그것에 의해 샤리아(이슬람법)가 보급되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는 꾸란을 주시어 인류를 축복하시고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훌륭한 인간의 삶이 있었으니 그 삶은 모범이 되는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지침은 진리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케 하는 타우히드(신의 유일성)의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믿어지고 지켜졌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예언자 하나님은 그분의 사도들을 보내시어 인류가 현세의 영광과 내세의 행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 다와(선교)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종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지 결코 신과 동급이 될 수 없으며 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또한,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는 증거를

우리는 꾸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 이전의 타
우라(토라)를 확증하노라. 그리고 끼쁜 소식을 전하니 나
이후에 ‘아흐마드’ 라는 이름의 사도가 올 것이라.”

(앗사프:6)

“무함마드는 그대 남성들 중의 여느 아버지가 아니라. 그
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마지막 선지자라...”

(알아흐잡:40)

그리고 사도(무함마드)께서 말씀하시길

(사도의 사명과 예언자의 지위는 끝났고 나 이후에 사도와
예언자는 더 이상 없노라.) (하디스 아흐마드)

여기서 아흐마드란 이름을 가지긴 한 선지자는 바로 사
도 무함마드입니다.

또한,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사도도 무함마드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사람들
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꾸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었을 때 노아가 말하니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알아으라프:9)

“하나님께서 사무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살리흐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알아으라프:73)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모세를 파라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보내니...” (알주크루프:46)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네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는가?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심중을 아시나 저는 당신의 심중을 모르나니 당신은 숨겨진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으니 나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인 하

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으며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 저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었고 당신이 저를 승천시킨 후에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나니 당신은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알마이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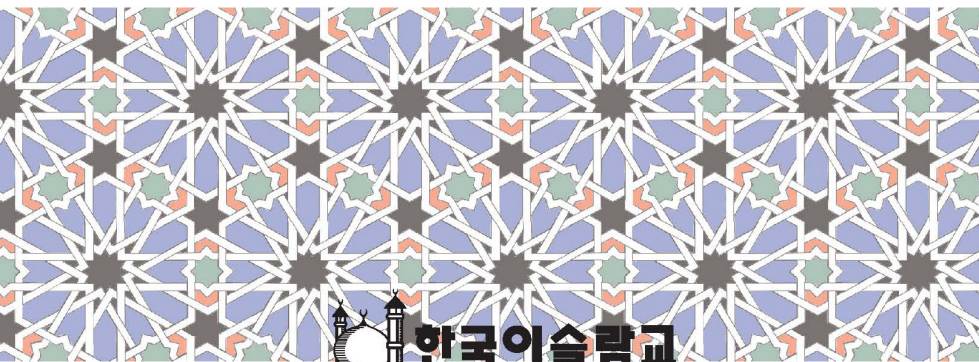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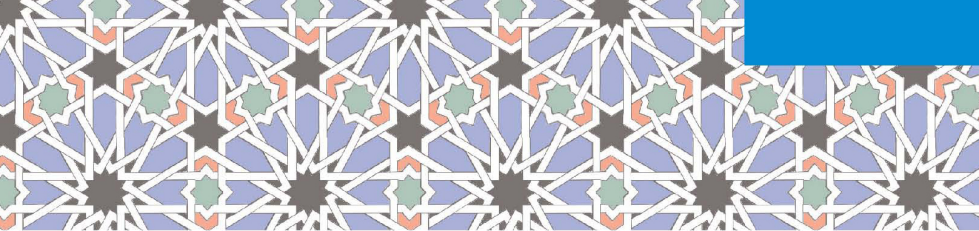
이것은 완벽함에 도달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그대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계시를 내릴 때도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알안비야:25)

마치며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슬람교
KOREA MUSLIM FEDERATION

Tel: (02)793- 6908 Fax: (02) 798-9782

<http://www.koreaislam.org>